

### 이란, IPC 도입 현황 및 석유부문 개발 동향

장윤희 연구원

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

#### ■ 주요 내용

- 8월 22일 에샤크 자한기리 이란 부통령이 새로운 석유계약 방식인 IPC(Iran Petroleum Contract)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함.
- 경제제재 해제 이후 7개월 동안 이란 원유생산량은 계속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이란은 석유 및 가스 부문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임.
- 중국, 인도 등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국들의 이란 유전 개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**KIEP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  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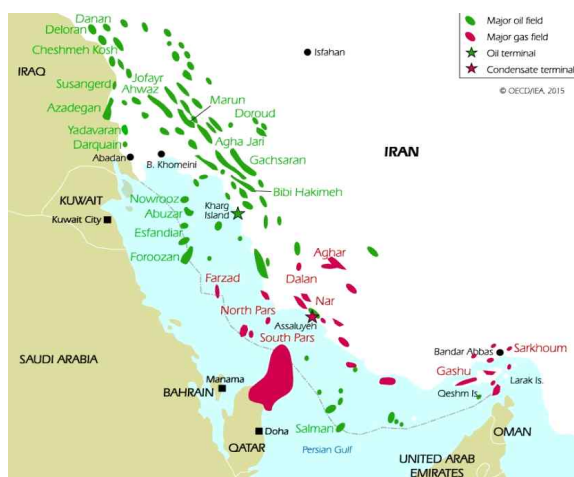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 이슈 현황

8월 22일 에샤크 자한기리 이란 부통령이 새로운 석유계약 방식인 IPC(Iran Petroleum Contract)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함.

- 이란 내 강경보수층의 반대로 IPC 도입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으나 8월 초 이란 내각이 IPC를 승인함.
  - 이란 강경보수층은 IPC가 외국 기업들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음.
- IPC는 기존의 바이백(buy-back)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석유계약 방식으로 △ 20년 이상 장기간의 개발기간 보장 △ 생산 기간 동안 운영 참여 허용 △ 시장 가격에 연동한 서비스료 지급 △ 고위험 유전 개발, 석유회수증진(EOR, Enhanced Oil Recovery), 기술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특징으로 함.
  - 10년 미만의 단기 서비스제공계약인 바이백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생산물인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기간이 짧아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하며 서비스료가 고정되어 있어 외국 기업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됨.
- 정치적 반대로 인해 IPC 적용은 이라크, 카타르 등 주변국과의 국경에 걸쳐있는 유전 개발에 집중될 예정임.
  - 2015년 11월 이란 석유부는 IPC 방식의 52개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IPC를 통해 개발될 유가스전은 20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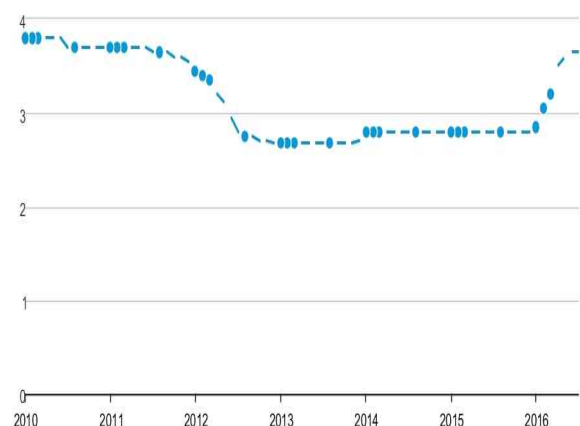
그림 1. 이란 유전 및 가스전



자료 : IEA

그림 2. 이란 원유생산 추이

(단위: 백만 배럴/일)



자료 : EIA

**☒ 경제제재 해제 이후 7개월 동안 이란 원유생산량은 계속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이란은 석유 및 가스 부문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임.**

- EIA에 따르면 이란 원유생산량은 제재 기간 동안 일일 300만 배럴을 밑도는 수준에 그쳤으나 2016년 1월 제재가 해제된 이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6년 7월 일일 365만 배럴로 상승함.
- 이란은 제재 기간 동안 낙후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상황으로 IPC 도입이 에너지 부문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 - 이란 국영석유회사(NIOC)는 석유부문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최소 1,000억 달러의 외국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.
- NIOC는 IPC 방식을 도입한 첫 유전개발 입찰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우스 아자데간 등 주변국과 공유하고 있는 유전에 대한 입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.
  - 사우스 아자데간 유전은 이란 서부 이라크와의 국경에 위치한 유전으로 가장 먼저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야란, 야다바란 등 이라크와 공유한 다른 유전들이 우선적 입찰 대상에 포함됨.

## 2      **전망과 시사점**

**☒ 중국, 인도 등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국들의 이란 유전 개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**

- 중국과 인도는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으며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.
  -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CNPC와 Sinopec은 야다바란, 노스 아자데간 유전 개발 재개와 관련하여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 - 인도 국영석유기업 ONGC의 해외사업부인 OVL은 2008년 발견한 파르자드-B 유전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힘.
- 제재 해제와 함께 한국의 대이란 원유수입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석유 개발 관련 협력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.
  -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양국 간 다방면에 걸친 협력 방안이 모색되면서 IPC 도입과 함께 이란 석유 개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 **EMERiCs**

### 출처

MEED, EIA, IEA, NIOC, Shana, Iran Business News, Financial Tribune 등